

문화예술진흥기금 303건 8억 6800만 원 지원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지원
금 작년보다 1억3200만원 줄어

충남도는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에 303건을 선정, 모두 8억68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 저변 확대와 도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25일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업 분야 및 지원 금액을 보면, ▲문학 37건 8100만원 ▲미술 81건 1억9800만원 ▲공연예술 44건 1억7700만원 ▲전통예술 55건 1억4600만원 ▲청소년 문예활동은 40건 1억700만원 ▲종합예술 29건 8800만원 ▲국제교류 5건 1300만원 ▲기타 12건 5800만원이다. 금년 지원 규모는 지난해 399개 사업 10억원에 비해 1억3200만원이 줄었으며, 올해 선정률은 65.2%로 전년도 선정률 76.6%보다 11.4%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중앙 지침이 '소액다건' 지원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행한 201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는 8개 분야 465개 사업에 18억9800만원이 접수됐다.

4월 '모바일 행정 시대' 꽃핀다

— 출장 중에도 업무자료 확인...모
바일 오피스 구축사업 완료

충남도는 '모바일 오피스 구축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빠르면 4월부터 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업무 서비스는 그동안 PC로만 처리가 가능했던 행정업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범위는 직원 안내와 메모보고, 디지털회의 등 9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전자정부 공통기반 MDM(모바일 단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4월쯤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면, 도 직원들은 출장 등 외부 근무 시에도 직원을 조회해 전화를 걸거나, 내부 업무시스템 게시판과 메모보고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간부 일정이나 회의자료 조회도 가능하며, 도가 보유 중인 각종 통계자료도 손쉽게 꺼내 볼 수 있다.

올해 농수산물 수출 6억 달러 넘긴다

— 지원시스템 정비·거점별 에이
전트 확대 등 수출 지원 박차

▶▶▶ 충남 소식

충남도 내 농축수산물 수출액이 해마다 5000만 달러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올해 사상 첫 6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세우고 농축수산물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3농혁신 정책에 따라 수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다진 후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9개 사업에 54억 73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우선 탄탄한 수출 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농수산물 수출 연관 기관들의 협의체인 '수출지원단'의 대책회의를 연 1회 이상 정례화 하고,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돕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안정적인 수출기반은 ▲수출 물류비 24억1000만원 지원(15개 시·군) ▲포장재 제작 지원 8억5000만원(65개 업체 내외) ▲카달로그 제작 지원 1억원(34개 ") 수출 핵심체 육성사업 16억원 저리 융자 지원(20개 ") 등을 통해 조성해 나간다. 수출물류비는 특히 과일 등 신선농산물과 김치 등 단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준물류비의 20% 이내에서 지원하며, 포장재는 업체당 500만원 이내로 신선농산물을 우선 지원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정기 및 수시 수출 상담회 3 4회 개최(8000만원) ▲거점별 에이전트 10개소로 확대(1억8000만원)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19개 업체 5000만원) ▲홍보판촉전·박람회장 홍보관 운영 등 해외 시장 개척(7회 2억원) 지원 등을 실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펴나갈 방침이다. 손권배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 둔화, 엔화·달러화 약세 속 원화 강세, 각

국의 비관세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쟁력 있는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을 앞세우고 수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면 사상 첫 6억 달러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5억8400만 달러로, 지난 2011년 5억3400만 달러보다 5000만 달러, 2010년 4억6200만 달러에 비해 1억220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특히 세계적인 경기 불황, 기름 및 태풍 피해로 수확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채소류 수출이 29.8% 늘고, 가공식품 26%, 축산물 17.5%, 화훼류는 7.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충남도, '2013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발표

- 일자리 6만1000개, 고용률 61.6%~62.0% 달성

충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충남도는 글로벌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지난 해 보다 8천개가 증가한 6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13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충남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별 민, 관,산,학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94개 사업에 6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 사업의 조정 등 코디기능 강화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육성, ▲노사협력을 통한 고용유지 강화,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확립, ▲비정규직 차별개선 노력을 통한 반듯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고용지표는 지난해 보다 취업자 3만명 증가, 고용률 0.1~0.5% 상승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청년층 일자리 3,529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실업자 등에 18,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즈니스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을 통해서도 832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산불예방 및 산림가꾸기, 문화관광해설사 등 공공목적을 위한 일자리 8,676개, 자활근로사업,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14,039개, 지역소득 및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금년 초 도청사내에 개소한 도 일자리종합센터 내포사무소를 통해 충남서부 9개 시군을 전담하도록 하고, 공주시, 예산군 등 2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추가로 개설하는 등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채용, 경영정보 발굴, 제공, 민간취업포털과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별 대상별 특성화된 취업박람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WIN-WIN 일자리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시군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민원실 등 합동근무 추진, △고용, 복지, HRD기관 융합서비스지원체제 구축 △산업단지별 인력공급계획 수립 등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촌의 역습」 저자 특강

- 日 지역활성화 전도사인 '소네하라 히사시' 초청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2월 28일 연구원에서 일본 지역활성화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소네하라 히사시' 대표를 초청, 특강을 가졌다.

최근 국내에 번역되어 출판된 '농촌의 역습'(원제 '일본의 농촌은 보물산이다') 저자이자, 일본 NPO법인 '에가오즈나게테' 대표인 '소네하라 히사시'는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취약한 식량·목재·에너지 자급률 등에

▶▶▶ 연구원 소식

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역발상을 시작,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지역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히사시 대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어찌보면 일본보다 열악한 국내 농촌 현실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특히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충남농어업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한자리에

- 총발연, '6차산업화전략자문단' 위촉식 및 출범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농어업의 경영 다각화와 '3농혁신' 사업을 견인하기 위한 '2013년 농어업6차산업화전략자문단'을 2월 20일 출범시켰다.

이번 전략자문단은 각계각층의 농어촌 산업화 전문가, 현장 활동가, 그리고 연구진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충남도 6차

산업화 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 6차산업화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상담지원 멘토링 등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총발연은 20일 오후 3시 연구원에서 전략자문단 출범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갖고 '충남도 농어업6차산업화지원계획',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계획', '자문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발연 부설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농어민 스스로 그 지역에 맞는 6차산업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전략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충남농어업6차산업화 정책을 선도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지역먹거리 인증식당, '미더유' 본격 활용

- 충남발전연구원, 국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도내 총12곳 선정돼



1월 31일 충남 공주시 '시장정육점식당'에 충남도 로컬푸드 외식업체 대표명칭인 '미더유'가 처음으로 불을 밝혔다.

이 식당은 지난해 말 '충남도 로컬푸드 인증 외식업체 (이하 '미더유 인증식당')로 선정되어, 이날 '미더유' 상징물 점등식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미더유 인증식당'은 인증업체 7곳, 예비업체 4곳, 유통업체 1곳 등 총 12곳이 지정되었으며, 이미 '미더유 인증식당'이 온라인과 입소문을 타고 퍼져 인증전 매출액보다 최대 2배까지 증가한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미더유 인증식당'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역농산물 사용 외식업체의 발굴·참여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미더유 인증식당은 충남도의 3농혁신의 일환으로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향토음식문화 계승,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면서 "로컬푸드 관련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우수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상호경쟁, 사회봉사활동 등도 함께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더유 인증식당'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www.cdi6.re.kr, T.041-840-1215)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다.



“도시 디자인은 도시가 지닌 가치를 정립하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역할을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이충훈 박사는 2008년부터 5년간 유

럽과 일본의 여러 도시를 직접 돌아보며 얻은 생생한 자료와 사진을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라는 책에 담아냈다.

이 책은 ‘도시의 얼굴이 경쟁력’이라는 전제 하에 ‘도시 디자인’과 ‘도시 마케팅’, 그리고 ‘도시 브랜드’ 구축과의 연계성을 각 도시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충훈 박사는 “도시 브랜드를 나타내는 슬로건인 ‘아이 러브 뉴욕(I ♥ NY)’, ‘예스 도쿄(Yes Tokyo)’ 등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과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도시 디자인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 마케팅 전략임을 인식하고 도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도시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도시 공공디자인정책 방향 설정과 잘된 도시디자인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미학사, 195p)

충남발전연구, 「잘된 도시 디자인 둘러보기」 책 펴내